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실태조사 (I):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Family Life of Married Womens in Chonbuk : Focused on Family Relationship*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이 성 희
원광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하 근 영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g Hee, Lee
Dept. of Home Economics,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 Keun Young, H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amily relationship of married women in Chonbuk area as a part of study on family lif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The sample consisted of 1142 married women.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Chonbuk married women was marital relationship as the important family relationship. The family value orientations showed traditional value orientations. The family solidarity of Chonbuk married women mark medium level. We expect this program to be helpful in marital relationship for the strong family.

I. 서론

사회는 가족을 기본적인 핵심적인 단위로 삼아
존속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사회의 기능은 가족자체

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회가 가족의 기
능과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가족
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자체

* 본 논문은 1999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가족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한 국가사회에서 가족이 부여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 가족원 개인에 대한 복지적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성재, 1997).

그러나 사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와해에 대하여 이를 적절히 예방, 치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래 전부터 많은 가족관련 연구자와 가족문제를 다루는 일선 전문가들은 가족의 장래를 우려하고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강화시키는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더구나 19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 고유의 정책개발에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무시한 국가차원의 부적절한 정책집행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고질적이고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로 인하여 그 정책이 부실해지고 간과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역이나 환경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가족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의 전반적인 가족실태와 가족생활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의 의도로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의 협조로 실시된 전체 연구 중 1단계로서, 주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본 논고

의 연구 초점이 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전라북도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조사대상자 가족의 가족관련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 〈연구문제 2〉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연구문제 3〉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반적 배경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 〈연구문제 4〉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관계 유형별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반적 배경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 〈연구문제 5〉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결속력의 전반적인 경향과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조사지역은 전라북도의 5개 시, 8개 군이다.¹⁾ 자료수집은 1999년 4월-6월에 걸쳐 본 연구목적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1200여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 혹은 표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1198 중 1142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 빈도분석, ANOVA, t-Test,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지역별 표집율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조사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배 부 량	200	150	150	100	100	100	50	50	50	50	50	50	50	50
회 수 량	200	150	150	99	100	100	50	50	50	49	50	50	50	50

2. 조사도구 구성

1)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은 가족원의 신체·정신·장애질환여부, 해당가족원, 질환유형, 가족원 수, 노부모 동거관련 특성, 7세 이하 유아자녀의 타아특성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개념의 인식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족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본 고에서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지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가족성원들의 가족 내 지위상 맺은 가족관계들에 대하여 인식하는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가족원의 인지범위는 37개의 가족원 유형을 제시하고, '생존이나 동거에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의 중요도는 8개의 가족관계의 유형을 제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관계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3) 가족가치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전통적가족구성기준의 수용도와 가부장적가치관의 수용도를 파악함으로써,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전통적 가족구성기준은 가족을 구성하는 원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구성기준으로 제시(한남제, 1989 ; 최재석, 1990 ; 김규원, 1995에서 재인용)되고 있는, 혈연성, 부계성, 동일거주성, 동일가계성의 내용으로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할 때는 1점을 주고 동의하지 않을 때는 2점을 주어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구성기준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가부장적 가치관은 가장의 권위에 기초해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한다는 가치관으로서 가부장적 가치관은 성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구성원간의 권력간의 불평등과 이로 인

한 성의 이중구조, 성역할 분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유발(이영자 외 3인, 1999)됨으로써, 가족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어질 수 있다. 가족의 가부장적 가치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경신 외 2인(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5점 척도로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부장적 가치관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신뢰도 계수 .73).

4) 가족관계의 특성

현재 한국의 가족관계는 동반자적 가족관계, 평등주의적 가족관계라는 흐름에 발맞추어 우애적 가족관계로 변화되고 있지만 빠른 속도에 진행되는 구조적인 변화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라북도 가족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가족을 진단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가족관계의 유형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 부부관계, (2) 시부모관계, (3) 친정부모관계, (4) 자녀관계 등의 해당 영역별로 선행연구(변화순 외 3인, 1997)를 참고로,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성격상 응답의 방향이 다른 항목은 재부호화 작업을 거쳐 질문의 방향을 일치시켰다.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신뢰도 계수: 부부관계척도 .88, 시부모관계척도 .71, 친정부모관계척도 .65, 자녀관계척도 .77).

5) 가족결속력

가족결속력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는 규범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획득되기 보다는 주어지기 때문에 가족원간의 접촉빈도, 공유활동 등의 객관적인 면도 중요하나 가까움의 정도, 애정 그리고 내재화된 규범 등의 주관적인 유대관계의 질적인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가족결속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서적 결속, 접촉적 결속의

내용들을 선행연구들(김수정, 1996 ; 변화순 외 3인, 1997)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성격상 응답의 방향이 다른 항목은 재부호화 작업을 거쳐 질문의 방향을 일치시켰다.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결속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신뢰도 계수 .83).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조사대상자 가족의 건강상태를 보면,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5.9%로, 해당 가족원으로는 시부모가 10.9%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가족의 1.9%이었으며, 해당 가족원은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이의 응답은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질환에 대하여 직접 응답하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6%로 타도(변화순 외 3인, 1997)의 2.2%에 비해 전라북도가 두 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주목할 측면이다. 해당 가족원으로는 남편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가족 수는 4인 이하 가족이 62.9%이었다. 노부모와 동거부양하는 비율은 24.4%이었으며, 친정부모보다 시가족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부모 동거부양시 나타나는 어려운 점으로서 노부모의 질병문제를 1순위로 거론하였으며 그 다음이 경제적 비용문제, 노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32.0%이었으며, 탁아유형으로는 어린이 집이 51.1%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양육시, 어려운 점으로서 경제적 비용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2. 가족개념의 인식

1) 가족원의 인지범위

가족원의 인지범위를 응답사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비율의 경우를 보면,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²⁾

구분	내용	N(%)
지역	도시권(전주, 군산, 익산, 완주)	518(45.4)
	서부평야권(정읍, 고창, 부안, 김제)	284(24.9)
	동부산악권(임실, 순창, 남원)	148(13.0)
	동남부권(무주, 진안, 장수)	192(16.8)
연령	20대	158(13.9)
	40대	347(30.7)
	30대	422(37.4)
	50대	167(14.7)
	60대 이상	37(3.3)
학력	중졸 이하	402(35.9)
	고졸	473(42.2)
	대졸 이상	43(21.7)
월수입	50만원 미만	130(11.6)
	50-100만원	319(28.4)
	100-150만원	323(28.7)
	150-200만원	190(16.9)
	200만원 이상	163(14.5)
직업	전업주부	517(45.6)
	농·축·어업	152(13.4)
	기타 직업	459(40.5)
주소득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183(17.1)
	남편의 근로·사업소득	821(71.9)
	재산소득	15(1.4)
	기타 가족의 근로·사업소득	26(2.4)
	연금, 퇴직금 주변으로 부터의 도움	18(1.7) 10(1.0)
결혼상태	초혼	1047(91.8)
	비초혼	111(8.1)
거주년수	1-3년	387(33.9)
	4-10년	303(26.6)
	10년 이상	450(39.5)
주거유형	자 가	751(66.1)
	비자가	382(33.6)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가족관련특성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음.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특성

구분	내용	N(%)	구분	내용	N(%)
신체질환 유무	있다 없다	180(15.9) 951(84.1)	가족수	4인 이하 5인 이상	718(62.9) 424(37.2)
신체질환 가족원	본인	27(4.7)	유아자녀 유무	있다	362(32.0)
	남편	54(9.3)		없다	770(68.0)
	자녀	3(0.5)	자녀타아 유형	어린이집	390(51.1)
	시부모	63(10.9)		놀이방	19(2.5)
친정부모	15(2.6)	유치원	102(13.4)		
시가·친정형제	2(0.4)	개인타아	38(5.0)		
신체질환유형	고혈압·저혈압	100(17.1)	시댁·친정식구	113(14.8)	
	당뇨	47(8.0)	엄마단독	101(13.2)	
	중풍	11(1.9)	7세 이하자녀 양육시 어려운점	경제적 비용문제	149(13.2)
	기타	141(2.4)		주거공간부족	20(1.8)
정신질환 유무	있다	21(1.9)		육아정보 부족의 문제	35(3.1)
	없다	1089(98.1)		아이의 질병문제	31(2.7)
정신질환 가족원	본인	9(1.0)	최책감 문제	70(6.2)	
	남편	4(0.8)	개인시간의 제약문제	33(2.9)	
	자녀	3(0.6)	양육자와의 양육방식의 차이	8(0.7)	
	시부모	4(0.8)	별 어려움 없다	25(2.2)	
친정부모	0(0)	노부모 동거여부	비동거	861(75.7)	
시가·친정형제	1(0.2)		동거	281(24.4)	
정신질환유형	우울증	12(2.5)	동거노부모 유형	시아버지	83(7.3)
	뇌질환	4(0.8)		시아머니	133(11.7)
	기타	6(1.2)		친정아버지	34(3.0)
장애질환 유무	있다	51(4.6)		친정어머니	19(1.7)
	없다	1060(95.4)	기타	7(0.6)	
장애질환 가족원	본인	4(0.8)	동거노부모 연령	50대	46(4.5)
	남편	20(4.1)		60대	123(11.1)
	자녀	7(1.4)		70대	133(12.0)
	시부모	7(1.4)		80대이상	56(5.1)
	친정부모	2(0.4)	부양시 어려운점	경제적 비용문제	60(5.3)
시가·친정형제	3(0.6)	주거공간부족		21(1.8)	
장애질환유형	시각장애	2(0.4)		노부모와의 의사소통	43(3.8)
	청각장애	3(0.6)		노부모의 질병문제	64(5.6)
	지체부자유	32(6.5)		가족원간의 갈등문제	28(2.5)
	기타	6(1.2)	개인시간의 제약문제	25(2.2)	
	손자녀 양육방식의 차이	9(0.8)			
별 어려움 없다	40(3.5)				

가족원으로 생각하는 범위로서 어머니>남편>아버지 >시아머니>할머니>시아버지>할아버지>미혼의 아들>미혼의 딸>아내>삼촌>며느리>기혼의 아들>미혼의 형제자매>기혼의 딸 순이었다. 이와 같은 응답비율에

서 일정한 인식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혼인여부가 가족원 인지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혼의 아들(72.1%)이 기혼의 아들(53.2%)보다, 미혼의 딸(70.3%)이 기혼의 딸(49.8%)보다, 미

혼의 형제자매(50.2%)가 기혼의 형제자매(45.4%)보다 가족성원으로서의 선호도를 더 높게 보여주었다. 이는 혼인으로 말미암아 응답자 자신의 세대와 그 아래 세대와의 가족으로서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여성 쪽보다 남성 쪽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의 흥미 있는 결과는 응답자 자신의 윗 세대에 대하여는 여성 쪽을 남성 쪽보다 가족구성원으로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어머니(91.8%)>아버지(87.8%)>할머니(75.6%)>할아버지(72.2%)>시어머니(82.7%)>시아버지(75.3%)>장모(40.5%)>장인(39.2%)등으로서 응답자인 주부들은 윗 세대에 있어서 동성을 더 가족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일수록 여성인 경우가 많게 되는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될 것일 수도 있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인보다는 생존한 사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규원(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가족관계의 중요도

가족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파악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간접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였으며, 2순위로는 자녀관계, 3순위는 친부모관계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족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접촉하고 있는 현실적인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가 주부라는 사실로 볼 때, 이는 여성들이 가족관계에 부여하는 태도로서 부모관계보다 배우자, 자녀에게 일차적인 가족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가치관

1)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

(1)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의 전반적인 경향
전반적으로 보면,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중 혈연성

〈표 3〉 가족원의 인지범위 분포

인지 범위	N(%)
어머니	1048(91.8)
남 편	1045(91.5)
아버지	1002(87.7)
시어머니	945(82.7)
할머니	863(75.6)
시아버지	860(75.3)
할아버지	825(72.2)
미혼의 아들	823(72.1)
미혼의 딸	803(70.3)
아 내	645(56.5)
삼 촌	631(55.3)
며느리	626(54.8)
기혼의 아들	607(53.2)
미혼의 형제자매	573(50.2)
기혼의 딸	569(49.8)
고 모	553(48.4)
손자손녀	540(47.3)
사 위	533(46.7)
기혼의 형제자매	518(45.4)
외삼촌	507(44.4)
시누이	492(43.1)
이 모	463(40.5)
장 모	463(40.5)
장 인	448(39.2)
숙 모	446(39.1)
외손녀	440(38.5)
외손자	420(36.8)
처 남	333(29.2)
처 제	315(27.6)
사 촌	311(27.2)
친 척	270(23.6)
이복자매	184(16.1)
이복형제	181(15.8)
의붓아들	152(13.3)
의붓딸	150(13.1)
의붓어머니	147(12.9)
의붓아버지	143(12.5)

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2/3 정도(75.9%)가 동의하고 있었다. 부계성에 대해서는 46.2%가 찬성을, 56.3%가 반대의사를 나타내, 혈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계성은 약화된 측면을 보이고 있었다. 동일가계성에 대해서는 거의 6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경제적 공동체

〈표 4〉 가족관계의 중요도 순위별 분포

구 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N(%)	N(%)	N(%)
친부모 관계	226(19.9)	150(13.3)	279(25.1)
부부 관계	676(59.5)	259(22.9)	82(7.4)
자녀 관계	165(14.5)	557(49.2)	230(20.7)
형제 자매 관계	5(4)	34(3.0)	148(13.3)
배우자 부모 관계	52(4.6)	92(8.1)	232(20.9)
조부모 관계	2(2)	2(2)	10(.9)
배우자 형제 자매 관계	3(.3)	25(2.2)	105(9.4)
손자녀 관계	1(.1)	6(.5)	20(1.8)

로서의 가족의미가 약해져 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이라 하겠다. 동일거주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5.6%로서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중 가장 낮은 수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가장이나 미혼자녀들이 취업관계 및 학업관계로 다른 가족원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소위 '비동거가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말부부를 제외하더라도 한 조사 결과(김태현·박숙자, 1992)에 의하면 조사대상가구의 약 28%에 이른다고 한다. 본 조사결과는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한 가족원이 모두 동일한 장소를 거주지로 삼기가 힘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족구성기준에 있어서 인적구성인 혈연성, 부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통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리적, 경제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변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구성기

준 중 '혈연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다수가 전통적인 가족구성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은 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보다도 혈연중심의 원리를 더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적 배경변인과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

전반적으로 보면, 동부산악권이 전통적 가족구성기준의 수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남부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부산악권이 가족구성기준에 대하여 가장 근대적이라 하겠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그 수용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직업에 있어서는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사람들의 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 보다 기타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직업의 특성과 함께 이들이 가지게 되는 거주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가정의 월수입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200만원 이상의 집단과 50만원 미만의 집단과의 수용도의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가정의 월수입은 학력, 직업과 관련되는 변수로서 앞서 지적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들이 형성하게 되는 가치관, 의식들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표 5〉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 분포

문 항	동의여부	N(%)
가족원들은 반드시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혈연성)	동 의	862(75.9)
	비동의	263(23.2)
가족원들은 아버지쪽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부계성)	동 의	522(46.2)
	비동의	599(53.1)
가족끼리는 한 집에 함께 살아야 한다(동일거주성)	동 의	380(33.7)
	비동의	741(65.6)
가족끼리는 소득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동일가계성)	동 의	448(39.8)
	비동의	669(59.5)

〈표 6〉 일반적 배경변인과 전통적 가족구성기준수용도

구 분	내 용	전통적 가족구성기준 수용도	
		M	SD
지 역	도 시 권	6.07	1.39
	서부평야부	6.09	1.13
	동부산악권	6.30	1.07
	동남부권	5.43	1.27
	F-값	F=16.70***	
연 령	20대	6.30	1.23
	30대	6.14	1.23
	40대	5.87	1.38
	50대	5.71	1.20
	50대 이상	5.72	1.49
F-값	F=1.81***		
학 력	중졸 이하	5.75	1.28
	고졸	6.06	1.29
	대졸 이상	6.32	1.23
	F-값	F=15.56***	
직 업	전업주부	5.98	1.32
	농·축·어업	5.77	1.08
	기타 직업	6.10	1.34
	F-값	F=3.58*	
월수입	50만원 미만	5.70	1.27
	50-100만원	5.91	1.36
	100-150만원	5.97	1.27
	150-200만원	6.16	1.25
	200만원 이상	6.31	1.14
	F-값	F=5.17***	

*p<.01 **p<.05 ***p<.001

2) 가부장적 가치관

(1) 가부장적 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

조사대상자의 가부장적 가치관의 전반적 경향을 보면,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 2.98점으로 비교적 가부장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외도문제'와 '가사노동의 협조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여전히 가부장 중심원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문항에서는 5점 만점에 3.61점을 나타내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의 보수성을 엿볼 수 있다.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근대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음(Scazoni & Fox, 1975 ; Torneh, 1978 ; 최규련, 1984 ; 이형실·옥선화, 1985 ; 이성희·김태현, 1989)에 비추어 볼 때, 전라북도 남성들의 가부장적 가치관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라북도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부장적 가치관

지역적으로 볼 때, 동남부권 사람들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가부장적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남녀 평등사상에 영향을 받을 기회가 많아 가치관 측면에 있어서도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 근대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농·축·어업에 종사하고

〈표 7〉 가부장적 가치관 문항별 빈도분포

문 항	M	SD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3.61	.94
남편이 외도를 하더라도 아내는 참고 살아야 한다	1.94	1.15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해서는 안된다	3.32	1.40
아버지는 자녀에게 권위적일 필요가 있다	3.52	1.14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부모부양의 책임이 더 크다	3.28	1.25
가장이 가사노동을 거들어 주는 것은 가정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다	1.72	1.02
가족은 모든 일에서 우선적으로 가정의 말을 따라야 한다	3.39	1.08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	3.15	1.36
계	2.98	1.17

있는 기혼여성들이 전업주부나 기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들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집 대상의 성격상 농·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거주지가 주로 시골에 분포되어 있고, 전업주부나 기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도심지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아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월수입이 적을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의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수입은 대체적으로 학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앞서 설명되었듯이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 성향이 많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른 가부장적 가치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집단별 절대적 평균값의 차이만을 보면, 비초혼의 경우가 초혼인 경우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의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에 따른 차이는 가족수가 5인 이상인 경우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가부장적 가치관 성향을 가질수록 확대가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가부장적 가치관을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3. 가족관계의 특성

1) 가족관계 유형별 전반적인 경향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친정부모관계><시부모관계><부부관계><자녀관계> 순이었다.

가족관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우리 부부는 공통된

<표 8>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부장적 가치관

구 분	내 용	가부장적 가치관	
		M	SD
지 역	도 시 권	2.95	0.69
	서부평야부	2.90	0.71
	동부산악권	2.97	0.71
	동남부권	3.15	0.64
	F-값	F=5.32**	
연 령	20대	2.65	0.58
	30대	2.81	0.66
	40대	3.10	0.66
	50대	3.35	0.66
	50대 이상	3.50	0.64
F-값	F=37.40***		
학 력	중졸이하	3.26	0.67
	고졸	2.89	0.64
	대졸이상	2.67	0.63
F-값	F=67.04***		
직 업	전업주부	3.01	0.65
	농·축·어업	3.31	0.61
	기타 직업	2.85	0.71
F-값	F=25.85***		
결혼상태	초 혼	2.91	0.68
	비초혼	3.05	0.84
	t-값	t=-.78	
월 수 입	50만원 미만	3.25	0.76
	50-100만원	2.99	0.69
	100-150만원	2.99	0.65
	150-200만원	2.85	0.69
	200만원 이상	2.89	0.66
F-값	F=6.68**		
가 족 수	4인 이하	2.89	0.69
	5인 이상	3.12	0.67
	t-값	t=-5.29***	
노 부 모 동거여부	비동거	2.97	0.70
	동 거	3.02	0.66
	t-값	t=-1.22	

*p<.01 **p<.05 ***p<.001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낮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부부관계에 있

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공유의 부분이 적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주부들이 정서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응답에서 이상적으로 응답을 한 결과로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나 불만들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으려는 전라북도 여성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노부모관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문항 별로 살펴보면, 시부모관계와 친정부모와의 관계에서 흥미 있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용돈 관련에 있어서 시부모님께는 '노력한다'가 51.5%인 반면, 친정부모는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가중심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부모님의 의견준중', '이해의 폭'도 시가 쪽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라북도에서는 노부모관계에 있어서 시부모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실제 현상의 반영이라기보다 친정부모보다 시부모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오는 결과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흉을 본다'라는 문항과 '부모님이 나를 자주 야단친다'라는 문항에서도 시가 쪽보다 친정 쪽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허물없는 친정 부모와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의 시부모 관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녀관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문항 별로 살펴보면,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만 다른 문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56.2%), 부모들 스스로도 자기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문항은 어느 문항보다도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74.6%), 대부분의 청소년 자녀들을 대상으로한 연구들

(Duvall, 1971 ; 김진희, 1988 ; 김태희·이숙현, 1995에서 재인용)에서 자녀들이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높게 보고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노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측면이라 볼 수 있다.

2)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관계

지역에 따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유형 중 부부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남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부부관계, 친정부모관계에서 20대일 때 가장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고 50대일 때는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부부관계, 친정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가족관계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친정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즉 전업주부나 기타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주부에 비해 가족관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친정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가족관계의 특성을 보면, 대체로 월수입이 높아질수록 부부관계, 시부모관계, 친정부모관계 등에서 가족관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족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제적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인 가족관계 유지는 물질 기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유의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월수입이 높을수록 비교적 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부관계, 시부모 관계, 친정부모 관계, 자녀관계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혼이 가족관계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내에 질환자가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족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가족원 개

<표 9> 가족관계 문항별 빈도분포

(단위 : %)

구 분	문 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M(SD)
부부관계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	76.0	12.1	11.9	3.89(.80)
	남편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68.3	14.9	16.8	
	남편은 나를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2.8	7.5	9.8	
	우리 부부는 집안 일을 함께 의논한다	76.4	11.4	12.2	
	우리 부부는 진실로 서로에게 믿음과 관심이 있다	74.0	13.4	12.3	
	우리 부부는 공통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	28.8	21.9	49.3	
시(친정) 부모관계	부모님께 형편껏 용돈을 드리려고 노력한다	51.5(14.1)	12.6(10.3)	35.9(74.1)	3.90(.60)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돌봐드리려고 노력한다	45.6(51.9)	19.0(12.0)	35.4(64.8)	
	부모님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편이다	57.1(35.2)	12.0(28.0)	31.0(36.2)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3.2(33.6)	18.2(9.8)	38.5(54.1)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흥을 자주 보신다	3.6(22.7)	6.8(7.2)	89.6(62.5)	
	부모님은 나를 자주 야단치는 편이다	4.3(12.9)	7.1(8.9)	88.6(78.1)	
자녀관계	나는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74.6	11.4	14.0	3.82(.68)
	나는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과도 상의하는 편이다	70.1	17.9	22.0	
	나는 아이들을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50.2	26.8	23.0	
	나는 아이들에게 칭찬의 말이나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한다	60.9	19.6	19.4	
	나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다	67.8	10.7	21.5	
	나는 아이들에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68.1	15.5	16.4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인간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만성적 질환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정책적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족 수에 따른 가족관계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부부관계, 친정부모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4인 이하의 가족이 5인 이상의 가족보다 부부관계, 친정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결속력

1) 가족결속력의 전반적인 경향

가족결속력의 내용은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묶여졌다. 제1요인을 정서적 결속력, 제 2요인을 접촉적 결속력으로 명명하였다. 이의 연구결과, 접촉적 결속력(평균 3.20점)에 비해 정서적 결속력(평균 3.93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비율로서 평가해 보면, 정서적 결속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에서는 대부분 70-80% 정도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접촉적 결속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중 등산이나 운동, 나들이, 같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정도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가족외식, 친구·친척들과의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 정도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전라북도 가족이 정서적으로는 높은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가족문화는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부부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에 비해 구체적인 공유활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점차로 가족은 상징과 혈연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애정적 표현, 연대감을 증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족간의 활발한 공유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가족간의 공유활동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의 마련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한 변수들을 확대
대해 가면서 가족결속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다중
회귀분석(enter 방식)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먼저

단계 I에서는 가족수, 학력, 직업, 월수입, 가족원 질
환여부, 노부모동거여부, 유아자녀유무 등의 일반배
경적 특성 변인을 고려하였다. 직업적 더미변수는

〈표 10〉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관계

구 분	내 용	부부관계		시부모 관계		친정부모관계		자녀관계	
		M	SD	M	SD	M	SD	M	SD
지 역	도시권	3.87	.78	3.89	.62	3.91	.60	3.81	.68
	서부평야권	3.88	.85	3.88	.59	3.88	.54	3.81	.66
	동부산악권	3.77	.89	3.86	.64	3.89	.58	3.74	.73
	동남부권	4.09	.64	4.01	.51	3.95	.54	3.91	.66
	F-값	F=5.07**		F=1.55		F=.48		F=1.63	
연 령	20대	4.18	0.69	4.01	0.52	4.03	0.61	3.81	0.75
	30대	3.92	0.78	3.87	0.63	3.90	0.56	3.82	0.64
	40대	3.82	0.80	3.87	0.61	3.88	0.55	3.84	0.69
	50대	3.71	0.82	3.94	0.63	3.80	0.60	3.77	0.74
	50대 이상	3.76	0.78	3.90	0.54	3.80	0.21	3.78	0.61
F-값	F=8.21***		F=1.67		F=2.74**		F=2.7		
학 력	중졸이하	3.72	0.86	3.86	0.62	3.80	0.58	2.77	0.72
	고 졸	3.91	0.77	3.90	0.63	3.92	0.59	2.82	0.65
	대졸이상	4.16	0.67	3.94	0.56	4.01	0.54	3.91	0.66
	F-값	F=22.18***		F=.88		F=7.83***		F=2.80	
직 업	전업주부	3.88	0.78	3.90	0.62	3.91	0.60	3.85	0.68
	농·축·어업	3.83	0.76	3.78	0.58	3.78	0.49	3.73	0.68
	기타 직업	3.93	0.82	3.93	0.60	3.93	0.56	3.82	0.69
	F-값	F=1.01		F=1.56		F=4.20*		F=1.52	
월 수 입	50만원 미만	3.50	1.00	3.75	0.78	2.73	0.64	3.70	0.79
	50-100만원	3.74	0.84	3.84	0.61	3.80	0.57	3.78	0.73
	100-150만원	4.01	0.73	3.89	0.56	3.95	0.55	3.87	0.63
	150-200만원	4.02	0.68	3.99	0.58	3.95	0.58	3.86	0.65
	200만원 이상	4.04	0.67	3.97	0.60	3.97	0.54	3.82	0.59
F-값	F=13.55***		F=2.84*		F=5.25***		F=1.65		
결혼상태	초 혼	3.92	0.78	3.92	0.60	3.93	0.57	3.84	0.67
	비초혼	3.26	1.13	3.62	0.61	3.59	0.60	3.61	0.77
	t-값	t=3.37**		t=2.97**		t=4.36***		t=2.79**	
가 족 원 질환여부	없 다	3.97	0.75	3.92	0.58	3.93	0.57	3.85	0.67
	있 다	3.72	0.89	3.84	0.70	3.83	0.55	3.71	0.70
	t-값	t=3.99***		t=1.44		t=2.23*		t=2.68**	
가 족 수	4인 이하	3.96	0.80	3.90	0.61	3.94	0.56	3.85	0.69
	5인 이상	3.80	0.78	3.91	0.60	3.85	0.59	3.78	0.67
	t-값	t=3.11**		t=-.39		t=1.99*		t=1.57	

*p<.01 **p<.05 ***p<.001

전업주부가 기준이 되며 직업1은 농·축·어업이 되며, 직업2는 기타직업이 된다. 회귀분석결과, 학력, 월수입, 노부모 동거여부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가족결속력을 설명하는 양은 8%이었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월수입이 많아질수록, 노부모 동거를 하지 않을수록 가족결속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에서 설정한 일반 배경적 특성 변인에 가부장적 가치관 변인을 고려한 결과, 학력, 월수입, 노부모동거여부의 변인의 영향력이 살아있으면서 가부장적 가치관의 영향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부장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의 가족결속력 설명력은 Beta 값 .14에서 .20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13%이었다. 단계 3에서는 유형별 가족관계 특성 변인이 첨가되었다. 그 결과, 학력의 영향력은 없어지고 월수입, 노부모 동거여부, 가부장적 가치관, 부부관계, 자녀관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설명량은 50%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가족결속력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관계 특성변인이 상당히 기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족결속력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상당히 영향력(Beta = .54)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안정성에 기여하는 핵심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관계임이 전라북도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접근법이 유용할 것이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가족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인 가족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련특성에서 가족원 중에 신체질환자는 시부모>남편의 순으로서 '혈압, 당뇨'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주부>시부모, 남편 순으로서 대부분 '우울증'이었다. 장애질환자는

<표 11> 가족결속력 문항별 빈도분포 및 요인분석

(단위 : %, 점)

구분	문항	요인 부하량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M
정서적 결속	우리 가족은 마음 속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한다	.84	69.8	15.2	15.0	4.04
	우리 가족은 모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	.84	75.5	16.5	8.0	3.71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돕고 어려울 때 힘을 북돋아 준다	.78	77.8	15.0	7.2	3.86
	우리 부모님은 집안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있다	.75	80.0	12.6	7.5	4.00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화목하다고 생각한다	.72	78.9	13.1	7.9	4.04
고유치 누적변량		4.24 47.2%				
계						3.93
집속적 결속	우리가족은 함께 등산이나 운동, 나들이 등을 자주 간다	.78	31.9	24.4	43.7	3.98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75	45.1	22.4	32.5	2.85
	우리 가족은 친척이나 친구들과 가족모임을 자주 갖는다	.73	33.7	30.7	35.6	3.19
	우리 가족은 같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54	41.0	10.0	49.1	3.00
	고유치 누적변량		1.29 61.5%			
계						3.20

〈표 12〉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독립 변인	단 계 I		단 계 II		단 계 III	
	b	Beta	b	Beta	b	Beta
가족수	-.06	-.01	-.22	-.04	.22	.04
학 력	.25	.14***	.35	.20***	.11	.06
직 업 1	-.28	-.01	-.49	-.03	-.44	-.02
직 업 2	-.99	-.08	-.80	-.06	-.09	-.01
월수입	.85	.19***	.84	.19***	.34	.09*
가족원 질환여부	.27	.02	-.21	-.01	.06	.00
노부모 동거여부	-1.17	-.08*	-1.23	-.09*	-1.21	-.10**
유아자녀 유무	-.12	-.01	.37	.03	-.34	-.03
가부장적 가치관	-	-	.29	.26***	.10	.09*
부부관계	-	-	-	-	.72	.54***
시부모관계	-	-	-	-	.10	.07
친정부모관계	-	-	-	-	.11	.07
자녀관계	-	-	-	-	.14	.10*
R ²	.08		.13		.50	
F	9.64***		15.16***		34.30***	

*p<.01 **p<.05 ***p<.001

남편)자녀, 시부모 순으로서 대부분 '지체부자유'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신체질환은 시부모에게서, 정신질환은 주부 자신이, 장애는 남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질환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전라북도 가족정책 수립 시, 질환가족에 대한 유형별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관련 특성 중 동거가족과의 관계를 보면, 친정관련 가족보다는 시가관련 가족과의 구성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시가중심의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부모와 동거 부양하는 비율에서도 친정부모보다 시가족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게 나타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노부모 동거부양 시의 어려운 점으로서, 노부모의 건강문제, 경제적 비용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유아자녀 탁아유형으로는 어린이 집이 가장 많았으며 시댁·친정식구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비용을 지적하였다. 둘째, 가족개념의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원의 인식범위로서 혼인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즉 기혼의 자녀, 형제보다 미혼의 자녀, 형제를 가족원으로서, 여자쪽보다는 남자쪽을 더 선호하였

다. 그러나 윗 세대를 인식할 때는 남자 쪽보다는 여자쪽을 더 선호하여 할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 장인보다는 할머니, 어머니, 시어머니, 장모를 더 가족구성원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관계의 중요도는 부부관계)자녀관계)부모관계로서 다른 관계보다 현재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관계 중심이었다. 특히 다른 관계보다 부부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은 전라북도 기혼 여성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셋째, 가족가치관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가족구성기준의 수용도에서는 혈연성)부계성)공동가계성)공동거주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혈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동가계성, 공동거주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변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가치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남편의 위도', '가사노동의 협조'라는 문항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으로 전라북도는 비교적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전라북도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어느 정도 변화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넷째,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가족결속력의 전반적인 경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적 결속력(평균 3.93점)에 비해 접촉적 결속력(평균 3.20점)이 훨씬 더 낮았다. 즉, 전라북도 가족의 결속력은 주로 규범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enter 방식)을 한 결과, 월수입, 노부모동거여부, 가부장적 가치관,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최종 변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량은 50%이었다. 즉 월수입이 높을수록,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가부장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가족결속력이 증가하였다. 특히 가족결속력에 있어서 다른 어떤 변인들의 설명력보다 부부관계의 설명력이(Beta 값=.54)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적인 의미를 지니는 측면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 장애가족의 비율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족원의 질환이 많을수록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측면이다. 또한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부모 부양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부모 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가족의료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전라북도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규범적인 안정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부부공동활동은 부족한

상태로 부부동반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기혼여성과 노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 지속시킬 수 있는 가족문화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는 부모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의 결과일수도 있는 만큼, '자녀'의 입장이 고려된 연구들이 추후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배경적 변인과의 관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족관계의 건강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족생활의 정보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차등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라북도 가족결속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서적 결속력에 비해 접촉적 결속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점차로 가족에 대한 표준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유대관계로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가족간의 공유활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활동의 창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단위의 캠프, 가족주말농장 제공, 가족용 오락 개발, 가족단위, 부부단위의 체육대회의 개최 등의 시도는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가족안정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족결속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부부관계' 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전라북도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가족관계로 부부관계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계에 접근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상담 프로그램 접근시에 부부관계를 강화하는 내용

이 우선시 되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조심스러운 논의이긴 하지만 동부산악권의 가족관계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는 동부산악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편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치매노인가족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다양한 가족유형들에서 나타나는 가족복지에 대한 요구들을 기초로, 향후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가족관련정책들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김경신·박옥임·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서의 가정폭력, 「정책적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 2)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제7집, 213-255.
- 3) 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태현·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가족 연구, 가족학 논집, 제 4집, 45-74.
- 5) 김태희·이숙현(1995),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만족도-청소년발 달, 중년기 변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가족학 논집, 제 7집, 91-125.
- 6) 변화순 외 3인(1997), 경기도 가족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경기도.
- 7) 이성희·김태현(1989),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7권 2호, 109-215.
- 8) 이영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1999),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9) 이형실·옥선화(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31-44.
- 10)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2호, 91-102.
- 11) 최성재(1997), "건강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21세기를 향한 새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족정책의 과제」, 한국건강가족운동본부 주최 각 정당초청 정책토론회.
- 12) Scanzoni J and Fox G. L.(1975), Sex Role, Family and Society : The Seventie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13) Torneh AK(1978),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